

광주송정-수서간 KTX 예매전쟁 일부 해소 전망

내달 15일부터 열차 2대 연결 시범운영 1주일 2천460석 증가...운임 10% 할인

오는 5월15일부터 좌석 증가로 광주송정-수서행 고속열차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15일 "5월15일부터 광주송정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호남선 일부 고속열차에 2대의 기관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영'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련(重連)은 기관차

를 2대 이상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 증편을 지속 건의한 결과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강기정 시장이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증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수서역을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의 공급 좌석이 일주일에 총 2천460석(6회 각 410석)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상시 매진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말인 토·일요일에는 기존 운행하던 410석 규모의 SRT에 410석의 KTX-산천을 추가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 총 좌석 공급 규모를 820석으로 2배 늘린다.

주말 못지않게 혼잡도가 높은 월요일과 금요일 열차에도 좌석 공급을 늘린다. 기존 단편으로 운행하던 410석 규모의 SRT에 410석의 SRT를 연결해 중련운영한다.

이용객의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

해 시범 중련운영 열차의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할인된다. SRT 열차에 KTX 열차가 중련운영되는 토·일요일 상·하행에 적용된다. 단,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를 이용하면 마일리지 는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다.

해당 열차의 승차권은 이용일 한 달 전인 4월15일 오전 7시부터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코레일톡, SRT앱)과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 발매기에서 예매가 시작했다.

중련운영 열차는 출발 시간이 같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온라인 예매 시 KTX

와 SRT 노선을 모두 조회해야 빈 좌석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열차 운행 횟수 확대 등을 국토부 등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김종호 광역교통과장은 "시범 중련운영으로 주말과 평일 혼잡 시간대 호남선 고속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시민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민주 광주 광역의원 경선 62명 후보 등록

서구3 선거구 제외 19곳 경선

20-21일 100% 권리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광주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6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시당 선관위는 이날 광역의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향후 세부 경선 일정을 발표했다.

후보자들은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구3 선거구를 제외한 총 19개 선거구에 62명이 등록해 평균 3.26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4 선거구, 남구1 선거구는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5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시당 선관위는 16일 오전 11시 당사에서 후보자와 대리인을 대상으로 경선 설명회를 열고 경선 룰과 투표 방식,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선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선은 오는 20-21일 100% 권리당원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20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총 5회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투표가 실시되며, 21일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이 지정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참여하는 인바운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은진 기자



총령공 제봉 고경명 선생 434주기 제향

15일 오전 광주 남구 포충사에서 총령공 제봉 고경명 선생 순의 제434주기 추모 제향이 열려 참석자들이 의례를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중소 취업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전남도, 50여명 대상 年 최대 120만원

전남도는 15일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5일까지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공고일인 4월1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에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6-7월 중 지원 대상자 5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선상환 후지원

방식으로 분기마다 개인별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월 최대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운영

광주시는 15일 "자치구별로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공공·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불법·정당 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대상 구간은 동명동 카페거리(동구), 광주공연마루 주변(서구), 광주국제야구장 주변(남구), 용봉제 주변(북구), 광주송정역 주변(광산구) 등 5곳이다. /변은진 기자

'장흥 물축제' 글로벌 축제 도약 본격 행보

도, 방콕 송크란축제서 홍보부스 운영 관광객 유치 등 업무 협의·문화 교류

전남도가 15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 벤차키티 공원에서 열린 송크란 축제에 참가해 교류 활동을 펼치는 등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는 해외 유명 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전남의 지역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축제 글로벌화 사업' 공모에 장흥군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태국정부관광청, 장흥군은 2024년 축제 업무협약을 하고 '물'이라는 공통된 주제

를 기반으로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려는 공동 목표 아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펼치고 있다.

개막 행사에선 수라씩 판짜르워라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주태국 대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 대행과 전남도 관계자가 함께해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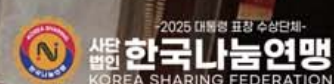
특히 '정남진 장흥 물축제 in 송크란' 홍보부스를 운영, 물을 주제로 한 체험요소와 무대공연 등을 통해 현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적극 알리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현지 홍보를 강화했다.

태국정부관광청과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 등 현지 유관기관을 방문해 축제 교류 활성화,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와 '전남도 최우수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의 얼굴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인 지역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되며 태국 전통 공연단 초청 공연과 태국 송크란 축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두 축제 간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2025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시민협업망 한국나눔연맹
KOREA SHARING FEDERATION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텃 빈 냉장고, 다 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